

“이사장 부인이 학운위원장에게 행정실장 소개했다”

행정실장, 광주일보와 통화서 “거부할 수 없었다” 발언 주목 시험지 유출 파문...이사장 부인 “통화 했지만 소개 안했다”

‘시험지 유출’로 파문의 중심에 선 사립 고교를 관할하는 법인의 이사장 부인이 학부모(학교운영위원장)에게 행정실장을 소개시켜준 정황이 새롭게 드러났다. 해당 행정실장은 학부모 요청을 받고 3학년 중간·기말고사 시험지를 빼돌렸다고 경찰에 자수했다.

이사장 부인과 학부모는 기말고사 시험지 유출 사건이 불거진 직후 이사장 부인과 학운위원장이 한 차례 이상 통화했고 수차례 휴대전화 메시지를 주고 받았던 것으로 수사를 통해 밝혀졌다. 경찰은 현 단계에서 법인 이사장 부인에 대한 수사 착수는 어렵다는 판단이나 수사 진행 상태에 따라 본격 수사에 돌입할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

17일 경찰 등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광주서부경찰은 문제가 된 광주 사립고교의 법인 이사장 부인이 학교 행정실장 A씨와 의사 학운위원장 B씨를 직접 소개시켜줬다는 사실을 최근 파악했다.

경찰은 B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학교법인 이사장 부인 C씨와 통신기록 일부를 확보했고 이를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파악했다는 것이다.

C씨와 B씨의 통신기록은 지난 11일께 집중됐다. 학교 기말고사 시험지 유출 사건이 외부에 알려진 시점이다. 하지만, 중

간고사 및 기말고사를 앞둔 시점에서의 기록은 현 단계에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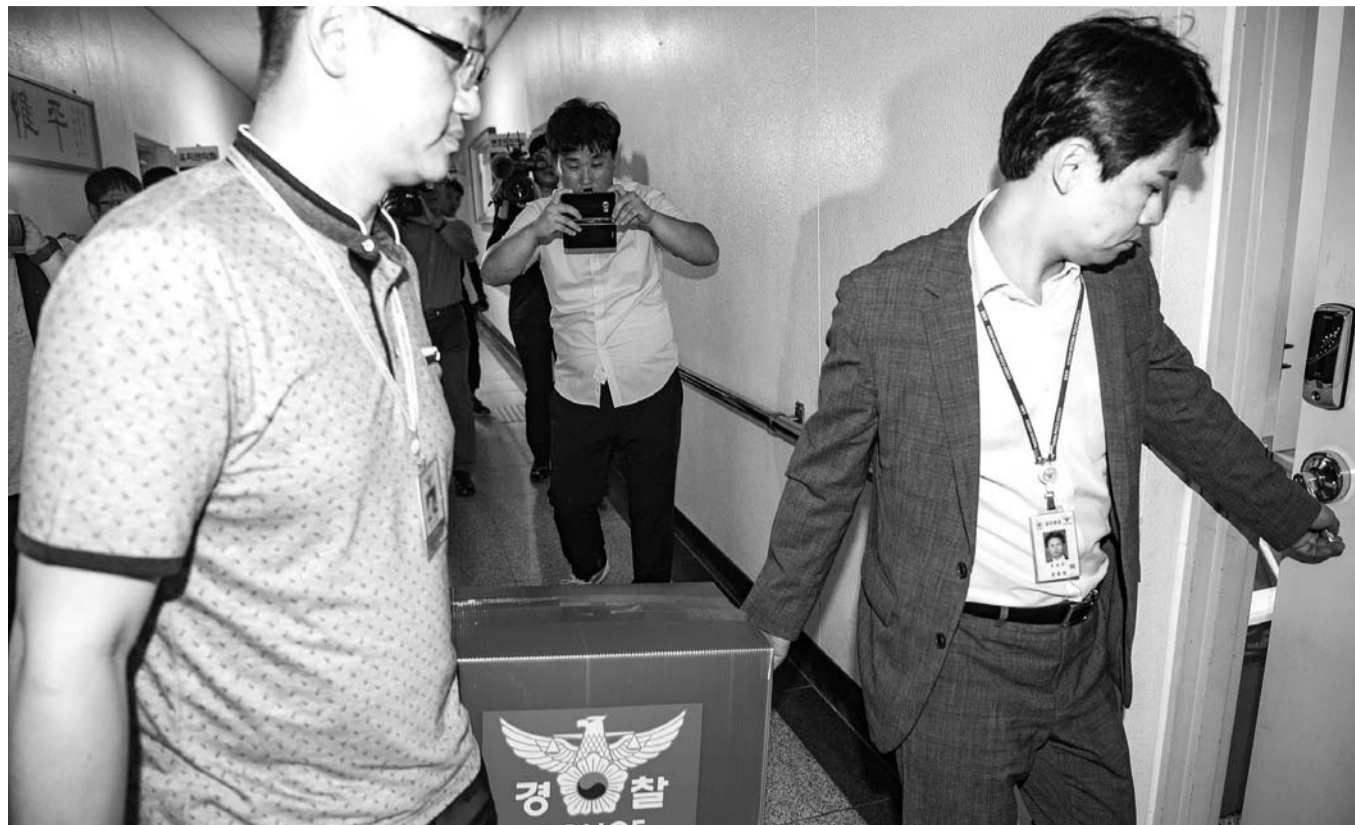
메시지 내용은 C씨가 “내가 괜히 순진한 행정실장을 너한테 소개시켰다”고 보내면, B씨가 “언니 미안해요. 죄송해요”라는 식으로 C씨가 B씨를 질책하는 내용이라고 한다. 경찰은 C씨와 B씨가 광주 모 여고 선·후배 사이로 동문회 모임을 유지해 오고 있다는 사실도 최근 확인했다. 광주 시교육청도 감사에서 이런 정황 일부를 파악한 상태로 알려졌다.

그러나 C씨는 이날 광주일보와 통화에서 “학운위원장과는 단순 동문으로 알고만 지내는 사이다. 그에게 행정실장을 소개해 준 사실은 없다. 단지 사건이 불거진 직후 통화한 한 차례였고 사실대로 관계기관에 말하라고만 했다”고 경찰 조사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현 단계에서 밝혀진 사실 만으로 시험지 유출 사건을 둘러싸고 제기된 이른바 뒷선으로 지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

이지만, 학교법인은 물론 학교에서 현재 어떤 자리도 맡고있지 않은 이사장 부인이 학교 관계자를 학부모에게 소개하고 연락을 주고 받은 사실 자체를 유의값게 보고 있다.

행정실장이 시험지를 빼돌린 사실이 발각돼 경찰에 자수하기 직전 광주일보와 통



‘시험지 유출 사건’을 수사중인 광주 서부경찰이 17일 해당 사립고교에서 압수수색을 벌여 확보한 자료를 조사실로 옮기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화에서 언급했던 내용도 다시 한 번 주목된다.

그는 지난 12일 광주일보 통화에서 “(시험지 유출을) 거부할 수 없었다. 금전거래는 없었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광주일보와 만난 자리에서도 “금전거래는 없었다”

고 거듭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행정실장의 ‘거부할 수 없었다’는 발언이 뒷선을 염두에 둔 것인지, 중간고사 시험지를 이미 빼서 건넨 탓에 이제 와서 거부를 못한다는 것인지 확인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말 그대로

단순 변명 가능성도 있다. 다만 상식선에서 볼 때 시험지 유출에 따른 대가가 수천만원 이상 있었지 않았겠느냐가 합리적 의심”이라고 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2등급 아들 3학년 중간고사 후 1등급으로

경찰이 파악한 시험지 유출 경위

학부모가 “시험지 빼달라” 제의 행정실장에게 다음날 사본 받아 시험지 재편집해 아들에 전달 경찰, 금품거래 여부 등 수사

광주 사립고 중간·기말고사 시험지 사전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시험지 유출이 1, 2년 전에도 있었는지 여부도 살펴볼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학교 행정실장으로부터 건네받은 학교 운영위원장이 아들에게 시험지를 편집, 가공해 건넨 사실이 드러난 만큼 학생의 1, 2학년때도 이같은 부정이 벌어지지 않았는지 수사를 통해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날 출입기자와의 질의응답에서 “학운위원장 아들이 2학년때는 2등급을 유지했으나 중간고사에서 1등급 수준으로 올라섰다”는 사실과 함께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상태도 일부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학생들의 제보로 불거진 기말고사 부정은 지난 1일 오후 5시께 학운위원장 A(여·51)씨와 행정실장 B(57)씨가 광주 모 카페에서 가졌던 30분간의 만남에서 시작됐다.

A씨는 B씨에게 “기말고사 시험문제를 빼달라”고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다. 카페 CCTV에서는 이들이 쪽지에 무언가를 적고서 주고 받는 장면이 담겼으나 그 내용은 현재 확인되지 않고 있다.

카페에서 만난 다음날인 2일 행정실장 B씨는 퇴근 시간 무렵인 오후 5시30분께 행정실 맞은편 등사실(인쇄실)에 들어가 이과 기말고사 시험지(9과목) 원안을 몽땅 들고 빠져나와 행정실에서 복사했다. 그러곤 1시간여 뒤 이들은 남구 노대동 거리에서 시험지를 주고 받았다.

빼돌린 시험지 복사본을 집으로 가져온 A씨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전과목을 직접, 손봤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는 편집본을 아들에게 건네며 “너희 학교에서 과거 출제된 족보”라고 했다고 한다.

행정실장 B씨는 경찰 조사에서 “학교운

영위원장인 A씨의 학교내 영향력과 아들의 의대에 보내려는데 성적이 뒷받침되지 않은 학부모의 사정때문에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행정실장 B씨의 범행 동기가 이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퇴직을 불과 3년여 앞두고 범죄에 따른 처벌은 물론, 퇴직금과 연금 상당액을 포기하는 불이익을 감수하고 시험지 유출을 감행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경찰은 수사 착수 6일 만인 이날 시험지 유출 사건이 일어난 학교를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학운위원장 및 행정실장의 집과 차량 역시 압수수색을 벌여 차량용 블랙박스,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이와 함께 행정실장 및 학운위원장 부부에 대한 통신 및 예금계좌 압수수색도 진행 중이다. 피파과 의사인 학운위원장 남편 또한 조만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범행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학부모들에 금품수수 의혹 고교 수영코치 내사 착수

광주북부경찰청은 “광주의 한 고등학교 수영코치가 학부모에게 금품을 받은 의혹이 있다며 광주시교육청이 수사를 의뢰함에 따라 내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과 시교육청에 따르면 수영코치 A(40)씨는 올해 2월 학부모 10명에게 설 명절 인사비 명목으로 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시교육청은 해당 코치가 지난 4월 16일 모 학부모에게 전화해 국가대표 상비군 선발

시 감독·코치에게 100만원씩 사례해야 한다며 모두 200만원을 요구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요청했다. 해당 코치는 수영대회에 참석한 학생의 학부모 4명에게 밥을 사라며 향응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 제보로 감사에 들어간 시교육청은 구체적 혐의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워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살인까지 벌여졌지만...기초수급자 모아 도박판

광주북부경찰청은 17일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상대로 도박 장소를 제공한 혐의(도박장 개장)로 이모(여·61)씨와 정모(여·62)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또 황모(여·69)씨 등 이 도박장에서 도박을 한 60대 기초생활수급자 할머니 5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광주시 북구 두암동의 한 아파트에 도박장을 차린 뒤 지난해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황씨 등에게 도박 장소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월세로 해당 아파트를 빌린 뒤 참가비 1000원, 판돈 5%를 받고 도박장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씨는 돈을 잃은 도박참가자들에게 기초생활 수급 통장을 담보로 받고 선이자 1만원을 떼 후 10만 원씩을 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 3월 이 아파트에서 도박빚 때문에 80대 할머니를 살해한 손모(여·67)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도박장을 적발했다.

/김용희 기자 kimyh@

광주 임동 재개발예정지서 미라화된 60대男 시신 발견

주택재개발예정지역에 거주하던 60대 남성이 숨진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7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16일 낮 12시30분께 광주시 북구 임동의 한 주택에서 ‘친구 A(66)씨’가 연락을 받지 않아 집을 찾아가니 출입 흔적까지 없어 이상하다’는 B씨의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현관과 이어진 거실에서 숨진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반듯이 누운 자세였으며 시신은 사망한 지 오래돼 미라화가 진행 중이었다. 외부침입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살고 있던 주택이 재개발예정지에 포함됐으나 보상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이주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평소 고혈압·당뇨 등 지병을 앓고 있었다는 유족의 진술을 토대로 시신을 부검해 사인을 규명할 예정이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시험비행 헬기 추락

포항에서 5명 사망

17일 오후 4시45분께 경북 포항시 남구 포항 비행장 활주로에서 상륙기동헬기(MUH-1) 1대가 추락해 승무원 5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당했다.

사고 헬기는 해병대가 지난 1월 인수한 ‘마린온’(MARINEON) 2호기로 파악됐다.

군 당국에 따르면 사고 헬기는 정비 후 시험비행을 하던 중 약 10m 상공에서 추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상한 1명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지만 현재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1000원만 줘” 음주 상습행패

○...술에 취해 “1000원만 달라라”며 시장상인들을 상습적으로 괴롭힌 70대 노인이 경찰서행

○...17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임모(72)씨는 지난 3월 오후 4시께 광주시 동구 대인시장 내 한 상점에서 바나나를 땅에 던지며 1000원을 요구하는 등 시장상인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리고 구걸했다는 것.

○...동중 전과 25범인 임씨는 평소에도 고성을 지르는 등 상인들 사이에서 공포의 대상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경찰은 임씨의 범행이 상습적인 데다 상인들에게 보복할 것을 우려해 구속영장을 신청.

/김용희 기자 kimyh@

상가건물 매매 [신축 상가주택]



□ 월곡시장 2분(일신아파트 · 부영아파트 부근) 산정공원 바로앞 (코너)

□ 공실 없음 (항시 임대대기)

□ 1층 ★상가 2칸★

□ 2층~3층 (원룸 9개) (투룸 2개)

□ 4층 (최고급 주택)

★ 공원앞 전망최고 ★

보 9천 · 월 600만 (용3억)

▶ 매가 9억3천만

010-7384-7800 010-6670-9800

상가매매(수익형)

상무지구 중심구역(12층중 6층 상가) 롯데마트 앞 19평 (모든 업종가능) 보5백 월 40만

▶ 시세 1억 매가 6천300만

원룸빌딩 매매

- ① 산정동(1층코너 상가) (원룸 15개)(합16개) 월세 600만 ▶ 매가 8억4천
- ② 월곡동 산정공원 1분(1층,상가칸) 2층~4층(원룸12개)(투룸3개) ▶ 매가 8억4천만 (월세 590만)
- ③ 월곡동시장 2분(원룸12개, 투룸2개) 총 14개 (월수익 550만) ▶ 매가 8억4천만
- ④ 전대정문2분 (원룸18개, 안잡1개) 보7천만 월700만 ▶ 매가 12억8천만(용 3억5천만 가능)

010-6670-9800 062-382-5500